

# 해 외 출 장 복 명 서

출 장 자	소 속	본원	직 위	부연구위원	성 명	강정숙
출장기간	2015.6.22.-6.26		출장지	일본 東京		
출장목적	1. 자료조사와 수집 2. 관련기관과 연구자와의 네트워크형성 및 자문					
주최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방문기관 및 면담자			협의사항 및 작업내용			
□ 日本中国友好協會 矢崎光晴사무국장			- 사진전 전시 사진 검토 - 군위안소 사진 배경 등에 관한 점검과 조사			
□ 일본사근현대사연구자 松尾純子, 일본 ngo 芝蘭팀			- 일본 讀賣신문, 毎日신문, 朝日신문 주제어에 의한 기사검색 작업 논의			
□ 靑山学院大学 송연옥교수			-일본 공창제와 군위안부제 관련성에 대한 의견과 일본 연구경향에 대한 의견교류			
□ W.A.M.의 池田恵理子 관장			- 일본정부나 사회의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 경향에 대한 논의 - 생산자료 책과 시각작업 DVD 검토와 구입			
□ 一橋大圖書館			- 군위안부 징집구조 파악과 관련한 노동, 공창, 일본 사회상과 관련된 책과 잡지 조사 입수			
□ 日本國會圖書館			-신문자료 검색 및 일본 우파등의 군위안부 논의 자료 조사 입수			
□ 偕行文庫(靖國神社)			일본군 부대사 및 조선군사령관 자료 조사			

상세한 업무처리 및 세부내용은 별도 붙임

2015 . 7. 8.

출 장 복 명 자 : 강 정 숙

<표지>

## 해외출장 결과 보고서

일본군 '위안부' 동원관련 자료 수집 및  
전문가 면담을 위한 일본출장

보고자 : 강정숙

여성권익·안전연구실 안전·건강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I. 출장개요

### 1. 출장 배경 및 목적

- 가.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일본의 일본군 ‘위안부’연구 상황 등을 점검함
- 나. 일본군 ‘위안부’ 동원관련 자료 조사 및 수집

### 2. 출장 일정

- 가. 기간 및 장소 : 2015.6.22.-26, 일본 동경
- 나. 일정

일시		내용
6.22.(월)	8:40-10:45	김포공항 출발, 하네다공항 도착
	14:00-17:00	日本中国友好協会 矢崎光晴사무국장면담
6.23.(화)	10:00-16:00	一橋大, 관련 자료 조사 및 입수
	17:30-21:00	일본신문조사와 관련하여 일본ngo 芝蘭팀(조사참가자 3명)과 일본사근현대사연구자 松尾純子 면담.
6.24.(수)	10:00-19:00	一橋大에서 자료 조사 및 입수
6.25.(목)	10:00-15:00	일본 국회도서관, 자료조사 및 입수
	15:00-17:00	青山学院大学 송연옥교수 면담
	18:30-21:00	W.A.M.(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방문, 이케다 에리코(池田恵理子) 관장 면담
6.26.(금)	9:00-13:30	일본 국회도서관 자료 조사
	14:00-16:30	靖國神社 내 偕行文庫 자료조사
	20:15-22:35	하네다 출발 김포공항 도착

## II. 출장 결과

### 1.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관련 일본단체 방문 자료 및 활동 상황 파악

#### 가. 日本中国友好協会 矢崎光晴사무국장면담

- 1) <戦後70年企画・村瀬守保写真展> 등 사진 전시물 검토
  - 사진작가 村瀬守保의 파악과 사진 찍게 된 배경에 대한 검토
    - 사진작가는 전쟁 전전 일본공산당 관련 활동가. 중일전쟁 이후 거의 30세 가까운 나이에 입대. 중대의 비공식적인 사진사가 되어 이동현장 사진과 사진을 원하는 군 동료들 사진을 찍음. 내밀한 사진이 중대 허용 하에 사진을 찍을 수 있었음.
    - 소속부대는 黒輜重隊聯隊, 兵站自動車第17中隊, 井上部隊 등으로 불려짐.
  - 전시되어졌던 사진에 대한 열람
    - 사진 작가의 직접 설명이 곁들여져 있는 사진집 1987년판을 2004년에 <新版 私の従軍

- 中国戦線：一兵士が写した戦場の記録 村瀬守保写真集>으로 간행한 부분
- 작가의 설명이 없어 사진집에 수록되지 못하였으나 사진작가가 직접 찍은 인물 사진과 당시 배경적 사진을 파일로 하여 위 전시 기간에 전시한 것을 검토할 수 있었음.



\* 위는 村瀬守保가 찍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사진 몇점

## 2) 사진에 관련한 질의 응답

- o 日本中国友好協会인 까닭에 중일전쟁시기 관련정보가 상당히 모여질 것으로 예상하여 이외의 사진자료에 대해서도 질문하였으나 이 외의 체계적인 수집에 대한 정보는 없다고 함.
- o 村瀬守保 사진집
  - 군위안소 사진 수록 관련 부대의 성격과 관할 장소의 확정 등의 필요성에 대해 협회 관계자와 공감하였음. 일본중국우호협회라는 운동단체가 가지는 제한성에 의해 깊은 사진 점검까지는 불가능하다고 함. 사무국장은 사진 파일 부분 제공기로 약속하고, 확인한 내용 공유하기로 함.
  - 군위안소 앞의 군인들, 池田龍병참사령관 명령하의 군위안소 규칙, 사창이라 할 중국인 여성들, 중국의 ‘일반위안소’라고 이름을 붙인 사진, 트럭으로 이동하는 군‘위안부’ 등이 있는데 시간과 장소 확정이 과제
- \* o 村瀬守保 위의 두 번째 사진과 관련해서는 일본활동가들 사이에서 일본인이라고 보는 연구자가 있음. 村瀬守保는 일반론으로 ‘병사들 상대로 되어진 위안부라고 말해진 여성 대부분은 조선인 여성으로 속아서 끌려오게 되었거나 혹은 강제적으로 연행되어졌다고 한다’(106쪽). 징집 방식에 대해 1987년 당시 한 일본인의 인식을 볼 수 있음. 사진을 구체적으로 보면 어린 나이의 여성도 아니고 상당히 일본인과 유사한 옷차림 등에서 위 사진이 곧 조선인여성이라고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봄. 이번 출장에서 이에 대한 논의로까지 가진 못하였음. 위 사진은 중일전쟁 발발 직후에서 1940.1까지의 것이므로 조선에서 어떤 여성이 동원되었는가와 관련해서도 질문을 던지는 것이므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 나. 靑山学院大学 송연옥교수 면담

- 일본신문 등 자료 조사와 관련하여 논의하였으나 지원 인력에 한계가 있다고 함. 일본에서는 학생들 시간당 천엔으로 인건비 계산한다고 함
- 일제시기 아사히신문은 외지판(조선 만주 대만)이 영인되어 있고 매일신문은 마이크로 필름화, 요미우리도 인터넷으로 자료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함.
- 일본신문이 조선의 신문보다 인신매매나 유괴 성매매 기사 등이 더 적다는 지적에 일본신문이 조선보다 더 통제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함. 일본내 성매매업자들의 활동 영역이 동북지방은 북해도나 동경의 업자, 관서지방은 남양으로 정해져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주의깊은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일제가 경남 진해에 해군기지 만들려고 할 때 강제수용한 땅값 일부와 하수도공사 등을 유곽업자 힘을 빌려 지원하기로 하자는 논의가 있을 만큼 일본군과 유곽의 긴밀한 관계에 주목해야 함

을 지적. 유곽을 평일에는 일반인, 휴일은 군인이 이용하는 방식이었음.

- 히로시마 대본영, 이와구니 기지 등이 있던 지역은 유곽도 군위안소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 위안소를 통해 줄부가 된 일본이 업자들이 발견되므로 좀더 조사와 연구가 진척되면 군위안소와 유곽과의 관계가 밝혀 질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었음. 50년전쟁을 이야기하는 송교수의 논리임,
- 일본의 연구자들은 젠더시각에 집중되어 있고 식민지에 대한 이해가 대부분 약함을 다시 강조함.
- 군위안부 문제를 보는 시각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조선여성이 군위안소를 경영하거나 중국에서 군위안소 경영자가 독립운동에 돈을 지원하는 등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자료 제시를 받지 못함.
- 지속적인 협조를 해 주기로 함.

다. W.A.M.방문, 이케다 에리코(池田恵理子) 관장 면담과 자료입수

1) W.A.M.(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 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 :

- 2005년 7월 개관 이래 작지만 강한 상설전시관을 가지고 있음. 6월 25일 당시는 wam긴급미니 기획전 <철거검증! 讀賣『慰安婦』報道>와 <중학생을 위한 '위안부'전>을 동시 개최한 후 그 전시물을 철거하는 중이었음. 현재 일본의 우경화가 아사히신문의 요시다세이지 기사에 대한 부정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 특히 가장 많은 신문부수를 가진 요미우리를 비롯하여 '위안부'보도 태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으로 검토하였음.
- 2015년 7월 현재는 第13回特別展으로 <'아시아해방'이라는 미명하에 인도네시아·일본군점령하의 성폭력>을 전시 중에 있음. 아주 세밀한 조사와 정보에 기초하여 전시와 출판물을 함께 내는 구조로 진행하고 있음. 위안부 관련 연구자들과 매우 긴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이를 통하여 상당부분 새로운 자료와 정보를 구하는데 도움이 됨. 주요한 도서와 영상자료를 입수하였음.

2) 이케다 에리코(池田恵理子) 관장

- NHK의 디렉터였으나 군위안부 관련 방송제작과 관련하여 NHK측과의 분쟁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 둠.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한 조사와 영상제작을 해 왔음. 현재도 비디오塾(ビデオ塾)을 운영 중임.
- 과거 작업성과와 앞으로의 WAM 작업과 네트워크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눔.
- 한국 피해자에 대한 전시도 앞으로 보완하여 할 계획이므로 협조 요청하였음.
- WAM측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 네트워크 중 현재 인도네시아는 활동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지원 활동가들이 분산되어 있어 약하고, 필리핀은 제13차아시아연대회의에 온 릴라 필리피나의 활동가라고 함. 이를 보아 정대협 측의 네트워크와 거의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2. 일본군성노예제 관련 자료 조사

가. 일본ngo 芝蘭팀(조사참가자 3명)과 일본사근현대사연구자 松尾純子 면담.

- 1931-45년간 동안의 讀賣, 毎日, 朝日신문에서 아래와 같은 주제어를 입력하여 당시 사회상황이나 군위안부 관련 기사를 조사하는 것으로 일본사근현대사연구자 松尾純子和 일본ngo 芝蘭팀(조사참가자 3명)의 협조에 의해서 자원봉사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國外移送	女給	慰安婦	接客業	身分證明書
誘拐	慰安土人	(慰安)酌婦	遊廓(遊郭)	渡航身分證明書
婦女 誘拐	賣淫婦	藝妓	料理屋	支那渡航
人身賣買	特種婦人	娼妓	料理店	渡支取締
慰安所	從事婦	娼婦	娛樂場	渡支
陸軍慰安所	仲居	醜業婦	娛樂所	渡航
皇軍慰安所	接待婦	給仕婦	軍人俱樂部	旅券
遊郭4	軍從屬者	酌婦募集	慰安場	渡航手續
貸座敷	抱主	酌婦稼業	妓樓	性病,
樂戸	稼業婦	渡航婦女募集	遊女屋	花柳病

娼區	稼業人	特殊婦女	酒保	檢査
業者	公娼	特種婦女	慰安施設	
特殊營業	従業婦	従業婦女	廢娼	
周旋業		妓女		

- 자료 조사목적: 1) 1937-1938년 사이에 일본군의 집중적인 요구에 의해 일본에서 다수의 군위안부 동원이 있었고 이에 따라 불법적인 경우도 있어 신문에서 다뤄지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점, 2)일본군위안소가 설치되었던 1931-45년 사이의 일본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 관련업과 해외 이동 등과 관련하여 일본신문에서 어느 정도 다뤄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통계적인 수준이나마 한국과 비교하여 보려고 하였음
- 그러나 의뢰한 이후 이번 출장 시 받은 기사 건수는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그 원인에 대해 검토 중임. 조사방법과 주제어에 대한 조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음.

나. 일본국회도서관, 一橋大, 靖國偕行文庫 군‘위안부’제 관련 자료조사 및 입수

1) 일본 국회도서관과 一橋大에서 자료 조사 및 복사

- 여성 노동 및 직업소개 관련
- 군‘위안부’ 및 공창제 및 여성사 관련
- 일본 형법 관련
- 1931-45년 일본신문조사

2) 靖國偕行文庫 靖國神社 <http://www.yasukuni.or.jp/archives/index.html> 관련 부대사 자료 조사

- 이 자료실은 야스쿠니신사 내에 있는 것으로 일본의 부대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본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곳임.
- 위안부 이름 처음 붙인 부대, 獨立山砲兵第三隊와 森川부대 조사 : ‘위안부’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獨立山砲兵第三聯隊와 아주 세밀한 언급을 하고 있는 森川부대가 동일한 부대임을 확인
- 일본군위안부 징집과 관련되었던 조선군사령관 板垣征四郎에 대한 자료 조사 : 다른 곳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자료이나 입수의 어려움이 있어 일부만 봄. 좀더 세밀한 점검이 필요함.
- 앞서 언급한 村瀬守保写真集과 관련하여 村瀬守保의 이동경로 등을 통해 사진과 사건 등을 좀더 구체적으로 확정해 보고자 하였음. 目黒輜重隊연대, 井上部隊, 兵站自動車第17中隊정도로는 자료조사가 어려웠음.
- 村瀬守保写真集의 제6위안소와 관련된 池田龍兵站司令官 소속 부대와 주둔지 등을 확정하고자 하였음. 문고의 부대사 전문가에게 질문하였으나 池田龍으로 끝나는 병참사령관의 이름 확인하지 못함. 문고측의 반응으로 보아 이케다 류사부로(池田龍四郎?)의 가능성 있음. 해행문고 자료 상담측에서 어떤 목적으로 조사하는지 어느 정도 파악한 듯 “신사의 목적과 다르거나 개인정보는 제공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池田龍의 조사는 중단.
- \* 조선인을 사냥하였다는 식의 고백을 하였던 요시다 세이지 책이 과장 혹은 거짓이라는 것이 일본 아사히신문에서 공개적으로 인정한 상태이므로 일본측 자료를 쓸 때 좀더 자료 검토가 필요하고, 村瀬守保가 군위안부로 조선인여성이 대부분 동원되었다는 언급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파악이 필요함 .

### 3. 수집자료 목록

가. 도서자료

- アクティブ・ミュージアム「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 編,『女性国際戦犯法廷のすべて : 「慰安婦」被害と加害責任』(第1回カタログ), アクティブ・ミュージアム「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 2006

- アクティブ・ミュージアム「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 編, 『証言と沈黙 : 加害に向き合う元兵士たち』(第7回特別展カタログ), アクティブ・ミュージアム「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 2010
- アクティブ・ミュージアム「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 編, 『中学生のための「慰安婦」展 : すべての疑問に答えます!』( 第5回特別展カタログ), アクティブ・ミュージアム「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 2010
- アクティブ・ミュージアム「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 編, 『日本軍「慰安婦」問題すべての疑問に答えます』, 合同出版, 2013

#### 나. CD

- 『私たちは忘れない〜追悼・姜徳景ハルモニ』, 1997
- 『沈黙の歴史をやぶって』, 2001
- 『女性国際戦犯法-ハーグ最終判決』, 2002
- 『大娘たちの戦争は終わらない-中国山西省・黄土の村の性暴力-』, 2004

#### 다. 단체 간행물

- 「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 編, 『wam だより』 vol.26, 2014.3
- 「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 編, 『wam だより』 vol.27, 2014.7
- 「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 編, 『wam だより』 vol.28, 2014.11
- 「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 編, 『wam だより』 vol.29, 2015.3
- 비디오塾, 「비디오塾の自己紹介」 (2015年版) 및 「작품 리스트」 소개자료

#### 라. 복사물 등 (생략)

### 4. 면담자 및 관련기관 (이름, 기관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등)

이름	기관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矢崎光晴(사무국장)	日本中国友好協会	〒101-0065 東京都千代田区西神田 2-4-1東方学会ビル3F		Tel:03(3234)4700  Fax:03(3234)4703
池田恵理子(관장)	WAM( 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 2-3-18 AVACOビル2F	E - m a i l : wam@wam-peace.org	Tel: (03) 3202 4633 Fax: (03) 3202 4634

### 5. 남은 과제

- 짧은 작업기간 중에 일본에서 생산된 자료 조사와 관련 자료의 원활한 입수가 필요한 데에 대한 대응이 필요.
- 한일 간에 관련 연구자 간의 좀더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정기적인 교류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